

강진군, 농촌 활성화 협의회

도시재생·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 부서 협업 이건섭 부군수 “나중 위한 공간 생각해야 할 때”



강진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진섭 부군수를 비롯해 20여 명의 관련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화사업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강진읍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작년

12월 선정된 강진읍 서성리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활력플러스 푸소센터 건립 등 주요 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구성을 하고자 마련됐다. 강진읍 동성리에 건축 예정인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센터를 기점으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 소통공간을 순

차적으로 늘려가 소통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2018년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완료하고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읍 서성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활체육여가공간임을 고려해 학생, 여성, 고령자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공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건섭 부군수는 “현재 필요한 사항 뿐 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때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도시재생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주관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 간의 협업으로 추진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강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 300억 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여성기업 우대 등 4대 분야 최대 4%까지 9억 원 이차 지원, 16일부터 접수

광양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41개 업체에 9억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산업단지 분양률 증가에 따른 융자지원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3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목)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광양시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 및 창

고업, ▲정보통신업, ▲폐기물 및 환경복원서비스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종류로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창업자금 등 총 4개 분야로 지원한 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다. 융자금에 대한 3%(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 이차 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와 협약 체결된 7개 금융기관 15개 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 받으면 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광양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기업지원 소식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61-797-3122)으로 연락하면 된다.

무안군 삼향읍 금동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

안전마을 조성 연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 실시

무안군은 지난 14일 나광국 도의원, 박원국 무안소방서장, 의용소방대,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삼향읍 금동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주택 화재예방과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마을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마을 현판식을 하고 마을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였으며, 롯데이클레에서 기증한 화재발생을 조기에 감



지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 교육과 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주

민들에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전에 주민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내 집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올해 대양산단 기업 유치 총력

현재 분양율 70.56% 연말까지 85% 달성 목표



목포시가 올해도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산단 등 지역에 결실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양산단은 현재까지 106만 8천㎡ 중 75만㎡를 분양해 70.5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필지는 산업용지 25필지, 지원용지 18필지이다.

시는 지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양산단 분양률 70%를 돌파하

며 얻은 자신감과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수산식품수출단지 본격화 등을 토대로 올 해는 85%까지 분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구 내에 입주한 에너지 특화기업의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용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 업체를 대양산단에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상생·협력 위한 축산관련 기관·단체 신년 간담회 개최



영암군은 지난 10일 축산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호 소통과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암축협장, 7개 축산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함

께하는 신년인사 겸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20년도 달라지는 축산정책 및 신규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 의견청취 ▲ 오찬 등으로 이어졌으며, 상호 대화의 시간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